

공예학과



공예는 실생활에 사용되는 실용제품을 대량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재료와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공방식에 의해 조형물을 제작하는 순수 예술행위를 포함합니다. 수공방식으로 생산된다는 점에서 대량생산에 의존하는 산업디자인과 구분되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예품을 제작한다는 점에서 조각과 차이가 있습니다. 공예 관련학과에서는 다양한 재료를 바탕으로 조형물을 디자인하고 창작하는 것을 배우며, 대학에 따라 금속공예, 도자공예 등 재료별로 세분화되기도 합니다.

적성 및 흥미



공예를 전공하기 위해서는 지유로운 사고와 창의력, 예술감각이 필요하며, 각종 재료 및 도구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손재주가 있어야 합니다. 단체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동심이 필요합니다.

관련학과



- 공예과
- 공예디자인학과
- 귀금속보석공예학과

- 도예과
- 금속공예학과
- 세라믹디자인학과

취득자격



- 국가자격 귀금속가공산업기사, 문화예술교육사 등



진출직업



- 제품디자이너
- 팬시 및 외구디자이너
- 보석디자이너
- 학예사(큐레이터)

디자인



- 예능강사
- 방과후교사
- 미술교사

교육



- 공예원
- 점토공예가
- 금속공예가
- 한지공예가

공예



- 미술품감정사

사무



- 잡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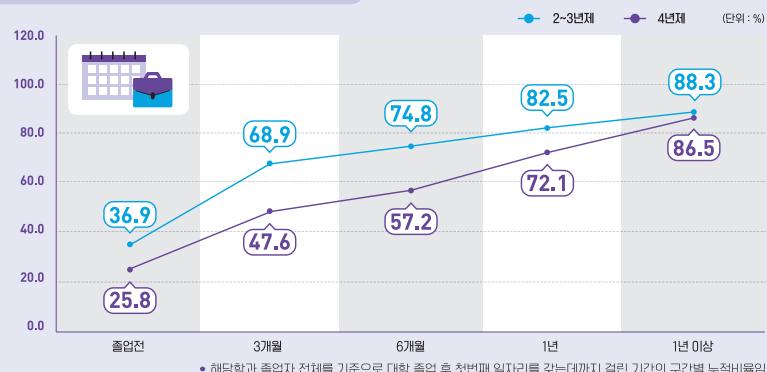
기자

통계로 보는 학과별 진출직업 정보

대학졸업 후 첫 일자리 진출직업(상위5개)



첫 일자리 입직 소요 기간(누적)



첫 일자리 업무수준과 교육수준의 일치 정도



첫 일자리 업무내용과 전공과의 일치 정도



- 「통계로 보는 학과별 진출직업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출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정부공식통계 제327004호)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매해 전년도 2월 및 전전년도 8월 대학 졸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함(Ex. 2019년도 조사시 2018년 2월 및 2017년 8월 졸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함).
- 2014년부터 2018년 전문대 및 4년대, 교육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워크넷 학과정보에서 제공하는 131개 학과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
- 전체 표본 가운데 매해 조사기준일(9월 1일) 당시 만35세 미만인 경우만 분석하였음.
- 첫 일자리란 “대출자직업이동경로조사”가 표집률로 사용하는 교육개발원 취업통계의 졸업년월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대학을 졸업한 이후 처음으로 가진 일자리를 말함.
- 본 자료에 사용된 첫 일자리 진출직업의 직업분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8년 한국고용직업분류(ECO)” 세분류 기준임.
- 첫 일자리 입직소요기간은 “대출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조사 기준대학을 졸업 한 이후 첫 일자리에 입직한 시기까지를 개월로 환산하여 구간화함.
- 첫 일자리의 업무수준–교육수준 일치 정도, 업무내용–전공(주전공)과의 일치 정도는 기준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업무 수준과 내용을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답한 내용임.